


**교육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4. 20(수)11:10 (지 면) 2022. 4. 20(수)11:10	배포 일시	2022. 4. 19.(화) 11:10
-------	--	-------	-----------------------

담당 부서 <총괄>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이지현 (044-203-6729) 사무관 김수진 (044-203-6471)
---------------	--------------------	------------	--

##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
    -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방역 및 학사운영 변경 체계의 단계적 적용
    -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기본 방역 체계는 지속 유지, 일부 방역 체계는 지역·학교 자율 대응으로 전환
    -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른 단계적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 총력 지원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일상회복
    - (방역) 5.1.부터 선제검사는 교육청 자율 실시,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중 접촉자 관리(신속하원검사 1회 실시 권장), 마스크는 식약처 허가 제품 착용 권고, 기타 방역수칙은 현행 유지·일부 자율 시행
    - (학사) 5.1.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하여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 전면 재개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 대학의 일상회복
    - (학사) 수업과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역량강화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다각적 대학 교육회복 추진
    - (방역)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 해제, 숙박형 행사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면 교육활동 확대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4월 20일(수)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초 등을 반영하여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 하되,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 추진 배경 및 상황 진단 】

-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발표 (2.7.) 이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대학들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해 왔다.
- 이에, 유·초·중등학교의 등교수업 학교(일부등교 포함, 4.11.기준)는 99.7%, 등교한 학생은 93.4%로 집계되어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 ※ 유·초·중등학교 등교수업 학교 비율(%) (3.7.) 97.7 → (3.28.) 99.5 → (4.11.) 99.7%
  - 유·초·중등학교 등교수업 학생 비율(%) (3.7.) 82.1 → (3.28.) 86.0 → (4.11.) 93.4%
- 대학 또한 작년 2학기 대비 대면수업 비율이 2배가량 증가(32.6%→59.5%, +26.9%p)하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에 기반하여 대면교육을 적극 확대하였고, 특히 실험·실습·실기수업에서 대면수업 운영비율이 75.9%로 높게 나타났다.

#### 《대학 학사운영 현황》

(단위 : %)

		일반대			전문대			합계		
		대면	혼합	비대면	대면	혼합	비대면	대면	혼합	비대면
이론· 통합	'21-2학기	25.0	24.4	50.6	29.5	40.8	29.7	26.1	28.4	45.5
	'22-1학기	56.7	18.8	24.5	47.3	31.0	21.7	54.5	21.6	23.8
실험·실습· 실기	'21-2학기	56.4	22.5	21.1	47.7	40.3	12.0	52.9	29.5	17.5
	'22-1학기	82.2	10.0	7.7	65.8	23.6	10.5	75.9	15.3	8.8
합계	'21-2학기	52.9	29.5	17.5	26.1	28.4	45.5	32.6	28.7	38.7
	'22-1학기	61.8	17.0	21.2	53.4	28.6	18.0	59.5	20.2	20.3

- 또한 유·초·중등학교의 새 학기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3주에 정점을 보인 이후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유·초·중등학교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 : (3월 3주) 62,284명 → (4월 2주) 14,984명
- 대학도 전체 확진자 대비 20대 확진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3월 초 15.6%→4월 초 13.2%)이며, 1·2차 백신 접종률 또한 각각 98% 이상\*으로 확인 되고 있다.
  - \* 20대 접종 완료율: 1차 99.5%, 2차 98.4%, 3차 58.6%(4.15.기준)
- 거리두기 종료 등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일상회복 방안 】**

□ 교육부는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4.21.~4.30.)-이행단계(5.1.~5.22.)-안착단계(5.23.(잠정)~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

**【방역·학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시기	방역	학사
<b>현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교기준: <b>7일 격리(등교중지)</b></li> <li>■ 자체조사: 확진자의 같은 반[418] "<b>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b>"</li> <li>■ 진단검사: <b>2회(선제검사 1회 포함)</b></li> <li>※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내 유전자증폭(PCR)→신속항원검사(RAT)</li> <li>※ 유증상자 : 2회, 5일 내 RAT→RA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학교지역의 상황에 따라 <b>탄력적 학사운영</b> 추진</li> <li>※ 핵심지표에 따른 4가지 학사 운영유형(정상교육활동, 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 원격수업) 운영</li> <li>■ 학사와 연계하여 교과·비교과 활동, 방과후학교/돌봄 등 운영</li> </ul>
↓		
<b>준비단계 (~4.30.까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교기준: <b>현행 유지</b></li> <li>■ 자체조사: <b>현행 유지</b></li> <li>■ 진단검사: <b>현행 유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월 정상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 수립 등 준비</b></li> <li>※ 현행과 동일하게 <b>탄력적 학사 운영</b> 기초 유지</li> <li>■ 학사와 연계하여 교과·비교과 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운영</li> </ul>
↓		
<b>이행단계 (5.1.~5.2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교기준: <b>현행 유지</b></li> <li>■ 자체조사: <b>접촉자 자체조사 종료</b></li> <li>※ 확진자 같은 반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자율적 관리로 전환</li> <li>■ 진단검사: <b>1회</b></li> <li>※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1회/신속항원검사(RAT)(24시간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모든 학교의 정상등교 실시</b></li> <li>■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b>정상운영</b></li> <li>■ <b>교육회복 본격</b> 추진</li> </ul>
↓	← 이행단계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안착단계 방안 마련(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	
<b>안착단계 (5.23.~22.1학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교기준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단계와 <b>동일</b></li> <li>■ 등교기준 변경에 따른 <b>출결·평가 기준</b> 변경 추진</li> </ul>

**① 기본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자율대응으로 전환**

□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일부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 (준비단계) 4월 말까지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같은 반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5일 간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검사도구(키트)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30% (약 220만 개)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축한다.
- \* 고위험 기저질환자(PCR → 신속항원검사), 유증상자(신속항원검사→신속항원검사)
- ※ 4.12.(화) '4월 3주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운영계획' 발표

□ (이행단계) 5월 1일(일)부터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우선,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 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 ※ 검사에 필요한 키트는 시도교육청별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수준 비축 권고
- 현재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기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비밀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추후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변경 시 변경된 지침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는 시도교육청별 계약기간\* 동안 지속 운영하고, 전담관리인 지정, 급식실 지정좌석제, 체육관 수업 및 양치시설 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토록 한다.
- \* 계약기간 만료현황(시도교육청 수) : 4월말 종료(8곳), 5월 중 종료(8곳), 6월 중 종료(1곳)

- (안착단계) 방역당국이 잠정적으로 정한 안착단계 시작 시점인 5월 23일(월) 이후부터 1학기까지는 방역당국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자가진단 앱 안내사항”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 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 다만 2022학년도 1학기 중 또는 이후에라도 감염상황, 정부 방역체계에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해 학교 방역체계에 개정이 필요할 때는 상황에 맞추어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

**2 단계적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 본격 추진**

- (준비단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의 특성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5월 이후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안내한다.
  - 가정학습일수는 57일 내외(유치원 60일)로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하고,
  - 탄력적 수업시간은 정상등교 실시에 따라 중단을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 학생의 안전 및 학습 결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 교사 대체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계약제교원 관련 완화된 지침은 연말까지 적용하며, 확진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 (유치원) 누리과정 포털 내 원격수업 자료 및 EBS 우리집 유치원(주4회) 제공 지속
- (이행단계)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를 실시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원격수업은 방역이 아닌 교육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 활용하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때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 ※ 2.7. 안내한 ①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또는 ②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활용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

**《 교육활동 회복 내용 》**

영역		주요 내용
교과	유아	▶ 개별놀이 중심에서 또래놀이·바깥놀이·신체활동 중심 정상 운영
	초·중등	▶ 학습 환경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학습도구·특별실 공동 사용,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 활용 가능 ▶ 평가 시,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모둠형 수행평가 활용 가능
비교과		▶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 가능 ▶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 체험학습) 운영은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시행 (프로그램 안전운영 지침 사전 마련, 학운위 심의, 학부모 등의 등 거침)

- (안착단계) 확진자 격리기준 등 방역지침 변경 시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등교 및 출결·평가 기준을 5월 중 신속히 마련 및 안내한다.
  - 특히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시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 마련을 통해 확진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 이외에, 원격교육법 시행, ‘케이(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및 학교의 기가급 무선망(38.6만 실) 구축 등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학교 간·국가 간 연계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 \*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수립(~2022.11.) 및 플랫폼 구축(2023.~2025.) 추진
- (교육회복) 교육활동 정상화와 함께 학생별 진단결과에 기반하여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 ※ 교과보충 지원규모: (2021.하) 2,200억 원(142만명) → (2022) 3,200억 원(최대 200만명)
  - 또한 시도교육청별 현장지원단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컨설팅)하여 본격적인 교육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교육결손 및 격차 해소 관련 정책 성과분석 및 중장기 교육회복 이행방안 마련(2022.하)

**《 코로나 상황에 대응한 탄력적 교육회복 추진 》**

적용시기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이후
운영규모	소규모(1:1, 1:2 등)	중규모(~10명)	소·중규모
운영방법	대면·비대면	대면 중심 / 캠프 등	대면 중심
내용	학습결손 해소, 심리·정서 상담 등 개인 맞춤 지원	교과보충 및 사회성 함양 단기·집중 지원	대면 중심의 교육회복 지속 추진 (중장기 이행방안 마련)

## 【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

- 대학 분야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학습·정서지원프로그램 및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활동 확대를 통해 다각적인 교육회복을 도모한다.

### ① 적극적인 대면교육활동 확대를 통한 종합적인 교육회복 추진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하였던 기존 비대면수업은, 대학 교육회복 및 일상회복의 기초 하에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 다만, 원거리 통학, 건강 등의 사유로 학교 등교가 제한되는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수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 방식 변경을 검토한다.
  -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때는, 대면수업이 일부 진행 가능한 혼합수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 \* 영상송출 장비 등을 이용하여 대면·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 등
  - 혼합수업 시 수업자료, 판서사진, 쌍방향 피드백 제공 등으로 원격학습 학생의 학습권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또한 대학 현장에서는 상담(멘토링), 진로탐색 등 다양한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입생·저학년 학교 적응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 학생상담, 마음건강 증진, 정신진단검사 등 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각적인 교육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대학의 자율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회·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비교과 활동에서도 대면을 확대하여, 학생 간 자발적 교류와 상호작용 증가를 통해 대학 공동체의 일상을 회복한다.
- 교육부는 코로나 19의 대학생 학습·정서 영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생지원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및 확산하는 등 지속 지원하며,

- 지역사회 의료기관, 전문 상담·심리치료센터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을 연계·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② 단계적 대학 방역체계 개편을 통한 대학 일상회복 지원

-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4.18.~)하고,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대학 방역지침을 일부 개편하여 대면수업 및 교육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 다만, 대학이 기존에 추진해온 학내 일상회복지원단,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자율적인 방역체계와 비상 대비체계는 지속 유지하여, 유사 상황이 발생하여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또한 학내 구성원이 개인방역 6대 수칙\*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권고할 계획이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 대학 방역체계 개편은 회복 준비단계(~4월 말)와 회복 이행단계(5월 이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회복준비단계에는 대부분을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변경 예정인 강의실 방역기준에 관하여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변경된 방역지침 적용을 준비한다.
- 회복 이행단계(5.1.~)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편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
  -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은 해제하나, 대학 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 별로 거리두기 기준을 설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당초 학교 방역 및 학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숙박형 교육행사는 대학본부에 신고 후 진행하도록 하여 다채로운 비교과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 숙박형 행사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교직원이 동행하고, 행사 외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체

○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하되,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사대상, 검사횟수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접촉자 자체조사를 추진\***토록 한다.

\* 예시 :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 및 근무하는 인원 중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1회 실시 등

○ 기온 상승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가 허가한 마스크로 확대**한다.

○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지침, 확진자 격리 방침(의무 또는 권고 여부) 등은 **향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경 시 대학방역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방역 당국의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4월 중 준비를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및 온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대학 또한 대면교육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학교·대학 지원체제를 **코로나 대응에서 교육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학교 방역·학사운영체제의 유지·보완을 지속 지원하여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학교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유·초·중등·특수)  
2. 학교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대학)

- 【별첨】** 1.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유·초·중등 특수학교)  
2.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대학)

담당 부서 <총괄>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3-6729)
		담당자	사무관	김수진 (044-203-6471)
<학교방역>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교육회복>	교육회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원숙 (044-203-7200)
		담당자	교육연구사	박상준 (044-203-7207)
<대학>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249)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 (044-203-6253)
<전문대학>	산학협력정책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상우 (044-203-6899)
		담당자	사무관	이은규 (044-203-6406)



## 붙임 1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유·초·중등·특수학교)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교육청 자율	교육청 자율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 유증상자(RAT→RAT)	1회 권장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 상자(RAT 1회)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비축	전체 학생·교직원의 30% 비축	전체 학생·교직원의 20% 비축 권고	교육청 자율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계약 기간까지 운영	계약 기간까지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급식실 지정좌석제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양치실 관리(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지속 유지】

- ①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② 환기(창문 상시 개방) ③ 급식실 칸막이 설치  
④ 일시적 관찰실 운영 ⑤ 방역인력 배치 ⑥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붙임 2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대학)

적용시기	현행	회복 준비(~4.30.)	회복 이행(5.1.~)	
확진자 등교기준	▶ 7일 격리(등교중지)	유지	유지 ※ 향후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시 방역당국의 기준 반영	
강의실 방역기준	▶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체육관무용실 4m <sup>2</sup> 당 1명 실험실습실 2m <sup>2</sup> 당 1명	유지 ※ 대학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대학별 의견수렴	대학 자율 ※ 학생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자체 방역기준 설정 가능	
자체조사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마스크 미착용접촉자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검사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중 "유증상, 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 조사	대학 자율	
방역관리	출입 관리	외부인 건물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대학 자율	
	전담 관리인	확진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행사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 숙박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	유지	숙박행사 기준 일부 완화 ※ 숙박행사 기준을 방역당국의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일부 완화
	기숙사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유지 ※ 생활치료센터 검측으로 입소 어려울 경우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비말용, 수술용 마스크 허용
	BCP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유지	유지
	환기	창문 상시개방	유지	유지
	식당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	유지